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사랑방공동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체 정기 총회와 교회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교회의 2021년 결산보고와 공동체의 2022년 사업계획(예산)입니다.
- 평양노회 정기노회가 19일(화)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입니다.
-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각종 모임과 회의를 정상화 하도록 노력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최상득 · 백성복 집사 가정 ( 부활절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6 호

2022년 4월 1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부활절은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절기로 초기 3세기를 통해 모든 교회가 지켰던 유일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력의 모든 절기 가운데가 가장 오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양력으로 지켜지는 성탄절과 달리 음력으로 계산되어 해마다 그 날짜가 달라집니다. 부활절은 '춘분 당일 혹은 춘분 직후의 만월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지는데, 보통 3월 22일에서 4월 26일 사이 중에 부활주일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정하게 된 계기는 325년 부활절 시기에 대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들로 인해 혼란을 막고 통일하고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이 지난 첫 월요일로 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지금도 이 방식으로 부활절을 계산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많은 나라들에게 부활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약 116개국), 유럽이나 미주 등 부활절 휴일 혹은 부활절 방학을 맞아 일주일 정도 기념하는 날을 보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 성탄절이 점점 기독교적 의미를 잃어가고 축제와 휴일의 의미가 짙어지는 것과 같이 부활절도 먹고 즐기는 휴일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어서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활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을 선물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부활절 계란을 주고 받는 풍습은 십자가 전쟁 당시의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는 집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낫설고 먼 마을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는데 낫선 곳에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마을 주민들에게 부활절을 맞아 그 상징으로 달걀에 색깔을 해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 달걀에는 언제가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을 바로 그 여인의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색다른 부활절 풍습을 지닌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계란을 언덕 아래로 굴려 까지지 않고 멀리 굴러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부활절에 남자가 여자에게 물 또는 향수를 뿌려주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나라에서는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선물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미국은 1878년부터 백악관에 어린이들을 초대해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 축하하는 모습들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주일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중의 하나인 '죽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큼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죽음 앞에는 공평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 앞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시는 모습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믿음은 알지 못했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이후의 누리는 영생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베드로에게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었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앞에 놓인 많은 일들과 두려움 때문에 더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선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 한주간의 말씀

“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18장 28-40절

제목 : 진리이신 예수님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이윤희 권사

찬송 : 144 272 220

### 관찰]

1. 28-32, 38b-40 빌라도의 재판거부와 무죄선포
2. 33-38a 빌라도의 심문

### 해석]

1.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다.
2.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스스로를 통해 진리를 보이셨다.

### 적용]

1. 예수님께서서 보이신 승리의 역사를 믿어 의심치 말고 변론하자.
2.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자.

## 부활절을 기다리며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다.  
우리 학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아침 금식을 했다. 금식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어'라고 생각하며 금식했다.  
이제 곧 부활절이다 생각하니 신이 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신 날인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생긴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목요일에 멧쟁이들은 세족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닦아 주는 예배였다.  
세족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이 지쳐있었다. 도보여행 걷기 연습으로 열린  
수업 시간에 이곡초등학교까지 걸어서 다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난 후 찬양을 부를 때 멧쟁이학교에서 내가 들었던 어떤 찬양 소리보다  
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서 놀랐다. 웬지 모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자동으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다. 찬양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많이 생각  
했다.

집으로 돌아온 토요일, 오늘도 가족 모두 아침을 금식하고 놀다가 부활절 예  
배 준비가 있는게 생각났다. 오후 3시까지 가면 되기에 조금 빈둥거리며 놀  
았다.

오후 3시 10분 엄마가 불러 밖에 나가 청소를 도왔다. 데크에 있는 모든 테  
이블과 의자를 닦고 벤치도 닦았다. 달걀을 포장하고 어른들께서 찬양 연습  
하는 것도 구경했다.

청소를 열심히 하며 부활절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준비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  
했다.

지난주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서 부활  
절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고린도전서 15:3-6, 56-58	인도자
*예배의 찬송	160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시 편 32:5	인도자
*용서의 말씀		다함께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16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복회기도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요한복음 20:19-31	설교자
성가대 찬양	주 사셨다, 예수 부활했으니	생활공동체
설교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정태일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171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516(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허철영 강춘자 / 봉헌위원 : 한미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 땅에 널리 선포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을 만나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모인 제자들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19>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한은 책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1>

예수 부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에 소개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도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 그래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요한은 존재감이 없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어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생명의 삶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향욱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오는 수요일에는 7리이 생일잔치를 할 겁니다. 미리 생일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색복사지에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써서 모아 책으로 묶어 준비했는데 올해는 각자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 종이의 두께 질감 색을 결정하고 적당한 재료를 찾아봅니다. 무늬가 있는 종이에 단색종이를 붙이기도 하고 하트모양 카드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편지로 잘라낸 예쁜 모양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모양도 크기도 질감도 모두 제각각인 카드에 생일을 맞는 친구에 대한 사랑과 축하의 한 마음으로 담아봅니다.

꽃들이 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방방이에서 한 바탕 뛰고 모래놀이를 합니다. 언니들이 두고 갔는지 모래에 꽃잎이랑 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모래가 더러워지니 다 놓고 나면 모래 밖으로 버려야하다고 알려줍니다. 서늘함이 묻어있는 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구름이 오락가락 조율해주는 한참을 놀다보니 간식을 먹으러 들어갈 시간입니다. 장난감을 모아 정리하고 모래에 덮개를 덮고 신발에 들어간 모래까지 털려면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런데 장난감 정리가 끝났는데 호오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더 놀고 싶은가 하고 다가가 보니 글썽 꽃잎 풀잎을 하나하나 주워모으고 있습니다. 친구도 와서 함께 주워 모래밖으로 버리고 나서야 모래를 털기 시작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개학 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영향이 4월 첫 주에 절정을 이루더니 지난 주 화요일부터는 드디어 한 명의 확진자도 없고, 결석생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목련, 진달래, 벚꽃, 앵두꽃 등등 봄꽃들이 활짝 펴서 공동체마당은 꽃대궐이 되었네요.

고난주간을 지내며 어린이들도 때때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지냈고, 특별히 성금요일 점심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금식을 자원하여 십자가

를 지신 예수님을 목상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이후에 다가올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전도용 초콜릿성경책과 부활절 축하 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연 어느 누구에게 씨앗으로 심겨질지 기대됩니다.

금요일에는 학부모님 중 한 분이 부활절쿠키를 선물해주셨고, 그 날 베다니하늘주방에서 준비해주신 오후 간식은 구운 달걀이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에 부활 소망과 기쁨이 잘 자라나는 지난 한 주 봄날들이었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고난주간 동안 멋쟁이들은 한 주간의 생활 표어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활하자”로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오전 금식을 하고 연속기도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멋쟁이들의 모습이 참 멋지고 기특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엔 멋쟁이들이 자치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기도문 10가지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우리 멋쟁이들의 바람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는 도보여행 예행연습을 했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드리는 세족목요일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부활절 휴일로 쉽니다~ 월요일에 학생회는 도보여행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멋쟁이들이 가정에서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며 폭 쉬고, 도보여행을 가기 전 몸, 마음을 잘 가꾸어 밝은 모습으로 월요일 저녁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 교사 : 박예나 >

##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달 이상 연속적인 출장업무로 몸도 마음도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코로나가 내게도 찾아왔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라 조심한다고 했지만 피하지 못했다.

그래도 다행히 증상이 경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아내는 나에게 안방을 내어주었고 일주일간 안방에서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했다. 끼니때마다 방으로 들여 주는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과 아내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감동하는데 살다 보면 어느새 그 감동도 희미해지고 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처음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벽찬 감동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감동이 지금은 희미해진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이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영혼이 피폐해지는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나마 공동체 안에서 지내고 있어서 탈선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가까운 곳에 지체들이 있고 코로나 시국에도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동안 느슨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영혼의 회복과 영성을 갖추기 위해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내 마음대로 보내는 일상의 행위를 멈추고 의지적으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과 기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꾸려야겠다.

오는 주일은 부활절이다. 옛날처럼 공동체 식구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부활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인도 : 정재훈 목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시민들이 일만명 이상 사망하였으며, 도시의 90퍼센트가 파괴되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통로확보에 대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받기 위해 매일 끝없는 줄을 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폭력이 멈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열방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올해도 열방 공동체를 상처입은 개인과 가정회복 역사에 사용해 주시도록
- 공동체 헌신자들을 위한 노후 복지환경이 만들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지체들을 위한 기도>

- 고난주간 각자 처소에서 아침 기도회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신앙적 자세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사랑방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맞이하는 부활절이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목요 세족 예배는 간만에 생활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참여하여 더욱 뜻깊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은 부활절 예배를 위해 공동체 곳곳을 청소하고 파라솔도 교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활절 성가대 찬양을 부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모임들이 정상화 되면서 공동생활도 더욱 단단히 세워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